

사제와 수도자들: 사회의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공동책임

서언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방문을 앞두고 그분이 최근에 내놓은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¹)에 대해서 성찰하고, 복음화의 사회적 차원에 대해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에게 말하기 위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의 초대로 하느님 백성의 이런 놀라운 모임에 오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에 따르면, 온 교회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명으로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사회의 새로운 복음화**로 부르심 받았고, 오늘날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수많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복음의 기쁨』 52-75항 참조)

그분의 권고(『복음의 기쁨』)는 통상적인 교회의 복음선포를 쇄신하기 위한 대헌장(cartha magna)일 뿐만 아니라, 사회사목과 복음화의 상관관계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 사회의 새로운 복음화, 주체들: 그들의 친교와 선교정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별히 제4장을 통해 사회에서도 복음선포의 새로운 단계를 실현하도록 초대합니다. 여기에서 교황은 예외적으로 폭넓게 신앙과 복음화의 사회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교황께서 이러한 선택을 하시게 된 동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황께서는 사회적 차원을 “올바로 다루지 않으면 복음화 사명의 참되고 본질적인 의미가 계속 왜곡될 위험이 있다.”(176항)고 단언하십니다.

교황께서는 사회 복음화와 그 관련 사목의 중요성을 밝히시고자, 첫 선포(케리그마)와 또한 신앙을 통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명료한 사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¹참조. 프란치스코 교황,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Libreria Editrice Vaticana, , Città del Vaticano 2013.

취하셨고 모든 이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고백한다는 것, 성령께서 모든 사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이의 선익**을 바라고 찾고 배려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선포를 받아들이면 자연스레 **사회적 임무**를, 곧 “ 형제애와 정의의 복음 ” (179항)의 삶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사회의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인식을 일깨우시고자 강생의 **실재성**과 구원의 **완전성**을 본질적으로 상기시켜 주십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선포와 체험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결실들을 자아냅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 안에서 - 가난한 이, 굶주린 이, 옥에 갇힌 이, 이민자, 소외된 이, 존엄성을 침해당한 이 - 그리스도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누리의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모든 이와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교회의 사랑의 임무가 흘러나옵니다. 교회는 이제 그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한데 모으시어(에페 1,10 참조), “ 새로운 피조물 ” 이 되게 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 자기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 ” 입니다.

사회 복음화와 그와 관련된 사목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에 대한 **경험**의 표현들이고, 교회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건설적인 차원**입니다. “ 교회는 본성상 선교적입니다. 바로 이 본성에서 이웃을 향한 실질적인 사랑, 이해하고 돕고 격려하는 공감의 솟아납니다. ” (『복음의 기쁨』 179항)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간추린 사회 교리』를 공부하고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시지만(『복음의 기쁨』 184항 참조), 『복음의 기쁨』에서도 설명하듯이 사회 복음화와 그와 관련한 사목의 주체는 우선적으로 **교회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주교, 사제, 남녀수도자, 평신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누가 되었건 교회 안에서 그의 역할은 복음화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백성을 구성하는 것입니다(『복음의 기쁨』 120항 참조).

사회 복음화의 성공여부는 그들의 **친교성**과 **선교성**에 달려 있습니다.

2. 사목 주체들의 친교성과 선교성

프란치스코 교황은 구조와 방식을 바꾸기에 앞서, **사목적인 대화**에 주력하십니다.

사회 복음화에 관한 사목활동은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동체적이고 선교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보적인 대화는 구조들의 쇠신, 계획과 역동적인 사목의 쇠신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교황께서는 사목의 일꾼들을 공격할 수 있는 유혹들에 관한 묘사를 통해 공동체와 이상적인 형제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복음의 기쁨』 92항 참조), 선교에 대한 열정, 복음화에 대한 기쁨과 희망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거기에는 분명, 복음선포자들의 친교와 선교성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몇 가지 **위협**들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 영적 세속성 ” 이라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신앙심의 외양 뒤에, 심지어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겉모습 뒤에 자신을 숨기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 공간 ’ 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복음의 기쁨』 93-97항 참조). 이렇게 장악하려는 의도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조직들 사이에서 **분열**을 야기합니다. 내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난 것처럼 목자들(사목자들)이 “ 인간 생활과 연관된 모든 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권리** ” 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사회질서와 공동선 달성에 있어서도 의견을 표명하지만, 세상일에 간섭한다고 입을 다물게 하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치권과 시민권뿐 아니라 제의실에서 나뉘는 영성지도를 받기를 원했던 평신도들에 의해서까지 자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현세 사물에 그리고 특히 정치에 그리스도교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관련하여, 사목자와 평신도 사이에는 - 직무와 책무의 - **상호 보완성**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정책에 있어 평신도는 자신의 경험과 현세 사물을 관리하는 역량을 발휘하여 주교,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들을 도와 그들의 **가르치는 임무**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사목자들과 남녀 수도자들은 정당을 조직할 의무가 있는 것도 군대에 가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그들이 도외시킬 수 없는 의무는 -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이 허사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는 - 사회적 양심을 형성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교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이웃과 가장 가난한 이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알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 주고, 다른 이와 공동선을 위한 책무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자기 나라의 현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정의와 모든 사람의 선익을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서 일하는 평신도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사목자들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분열되어서야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복음의 기쁨』 100항 참조), 어떻게 자기 나라와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와 화해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회 복음화의 주체들은 공동체와 형제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싸움은 안 된다.”(『복음의 기쁨』 98항)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천명하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지지하며, 형제애의 진정한 체험에 참여함으로써(『복음의 기쁨』 87항 참조),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며, 서로에게 봉사함으로써 함께 사는 ‘신비’를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사회 복음화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사목의 일꾼들이 극복해야 하는 또 다른 위험으로 **실천적 상대주의**를 꼽았습니다. 이는 마치 하느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고,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망각한 채 경제적인 안정에 매달리거나, 권력이나 인간적인 영예, 자신의 관점을 추구하고, 특별한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복음의 기쁨』 80항 참조).

사회 사목은 계획과 조직이 잘 되어 있어도 선교의 열정을 잃으면, 사람들과 예수님의 상처 가까이에서 현존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사랑의 정신이 사라지고 맙니다.

3. 증거자들, 교육자들, 동행자들

사목자와 남녀 수도자들은 “형제애와 정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머 고유한 직무와 카리스마와 증거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형제애와 정의의 복음”을 가르치도록, 또 **평신도들을 동행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말씀을 나누는 가족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의 체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더욱 자기를 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의 **사회 통합**에서의 임무는 **만남과 사회적 대화의 방식과 더불어 평화와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데** 있습니다(제4장 참조).

복음화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책임과 용기를 갖게 하는 성숙한 신앙을 위한 양성과 교육의 장소와 길(道)들로서 전례, 사회교리교육, 협회·연맹·운동·신학교·대학교·교회의 사회교리기관에서 하는 복음화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양성 과정과 실습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양성, 형제애, 그리고 정의의 복음을 토착화하는 장(場)이자 길(道)들입니다. 가톨릭 사회주관, 주교회의 차원과 교구 차원의 정의 평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는 주교회의 정의평화 위원회가 많은 사제, 수도자들과 함께 정의 구현을 위한 참된 증거자로 적극적인 예언자로 크게 기여했고, 좋은 사례가 될 만한 가치 있는 활동들을 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적으로만 자신의 신앙을 살지 않는, 신자들의 새로운 세대를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 ‘ 사회와 국가의 올바른 질서는 원칙적으로 정치의 과제’ 이지만, 그렇다고 ‘ 교회가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목자들도 보다 나은 세계의 건설에 진력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을 하며 개혁적인 활동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희망의 징표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 가톨릭교회는 교리의 성찰 단계든 실천 단계든 사회분야에서 다른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의 노력’ 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복음의 기쁨 183항)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날 평신도들의 사회적 양성과 전문적이고 지적인 영역에서의 복음화는 중요한 사목적 도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많은 평신도들이 있지만, 깊은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사랑 실천과 교리 교육과 신앙 거행의 임무에 매우 충실한 평신도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고 하시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 많은 신자가 평신도 봉사직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서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참여가 흔히 교회 안의 임무에 머물고 말아, 복음에 따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진정한 노력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 102항).

그 외에도, 목자들과 수도자들이 스스로 평신도성을 길러 내향적이 아니라, 더 바르고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힘으로 사회와 공공기관에서도 현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십니다. “ 참다운 신앙은 결코 안락하거나 완전히 개인적일 수 없는 것으로서, 언제나 세상을 바꾸고 가치를 전달하며 지구를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물려주려는 간절한 열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쁨』 183항)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것들이) **양성**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동행**(『복음의 기쁨』 169-173항 참조)도 필요합니다. 종종 사회에서, 지역 행정에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평신도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와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곤 합니다. 현재의 문제들에 과감히 맞서도록, 식별을 도와주도록, 자유롭고 준비된 수준에 맞는 영성 안내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와 이 땅의 모습을 쇠신하는데 투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들어주고, 조언하고, 따라갈 줄을 아는 사목자들과 수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시편 104,30 참조).

그러므로 평신도들의 영적 동행은 사회문제들에 민감한 현대적인 새로운 영적인 안내를 필요로 합니다.

4. 동행자들의 사목적이고 교육적 활동을 위한 몇 가지 방향

『복음의 기쁨』에서는 양성자들과 동행자들의 사목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을 위한 **방향**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접목시킨 방향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목자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다른 평신도들의 동행을 위한 활동에 임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와 공동선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①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살지 말고** 그들이 지닌 문제의 아픈 현실과 접촉하기를 꺼려서는 안 된다(78항 참조); **약육강식, 근시안적인 시각, 배척과 버림의 문화**에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53항 참조); **화려한 이미지로 축소된 정치, 소수의 재화 독점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길러야 한다(188항 참조).

②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빈곤**에 관심을 가지고(210-215항 참조²), 연대와 더불어 그 이상의 돌봄 - 돌보는 차원에는 종종 임시방편인 것이 있음(202항 참조) - 이 있어야 한다. **연대성**은 빈곤의 **구조적 원인들을 없애고, 모든 사람을 위한 온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교육과 의료 혜택 및 일자리 지원(고용)이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205항 참조).

③ 이어서, 배제를 양산하는 시장과 자본을 절대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을 포기하고, 반대로, **기업가 정신**으로 특징짓는 경제를 강화하고, 정의와 무상성의 원칙이 스며들게 하고, **공제조합과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생산적인 구조에 자리를 내어줄 능력을 기른다. 이런 전망에 따라 언급할만한 것은 경제와 관련하여 이곳 한국에서도 반드시 주목하고 지지할만한 것으로 2012년에 승인되어 중소기업의 연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상호의존(공생)과 사회적·가족적 기업을 통한 **복지 공동체**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협동조합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있다.

④ **경제정책**은 무질서한 투기적 금융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반영하는 경제정책이 되어야지 걸치레에 불과한 부록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203항 참조).

⑤ 윤리적인 측면이 무시되지 않는 **금융 개혁**을 실현한다. “ 돈은 봉사해야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58항 참조)

⑥ 효과적인 중재방식을 확보하여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일부가 아닌 모든 나라의 경제적 안녕을 보장해 주는 **건강한 세계 경제**를 달성한다(206항 참조).

⑦ 결론적으로 경제와 자본에 **우선하는 정치**를 회복한다.(그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에 봉사한다.)

사목자들과 수도자들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미 드러나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또 각별히, 그들이 적응해야 하는 것이 글로벌화의 상황이기에, 그들은 시민들과 그 대표자들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⑥ ‘ **고강도** ’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대중 영합주의와 과두정치, 혹은 온정주의의 위험들을 극복함으로써 대표 민주주의뿐 아니라 더

²새로운 형태의 빈곤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노숙자, 중독자, 난민, 토착민, 노인, 이민자, 배척과 부당한 대우와 폭력의 상황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여성들의 슬픈 현상, 낙태, 다양한 피조물의 멸종과 환경파괴 등입니다.(참조. 복음의 기쁨 209-216 항)

참여적이고 사회적인 민주주의³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와 자유의 미래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장받게 되거나 아니면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⁴.

㉞ **초국가적인 기구들의 개혁**을 생각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엔기구(UN: 국제 연합기구), 국제 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베네딕토 16세께서도 『진리안의 사랑』(67항 참조)에서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㉟ **공동선과 사회평화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한 국민이라는 체험, 국민으로서 우리, 곧 많은 이들의 집합체로 살아감으로써 부르심 받은 바, 공동선을 지향하며 온전한 시민을 향해 걸어나가고, 함께 살아가는 형제애의 신비와 만남·다문화·다종교간의 대화 방식을 세심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지적한 비슷한 객관적인 원칙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시간은 공간보다 중요하다.”, “일치가 갈등을 이긴다.”, “실재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전체가 부분보다 크다.”(222-237항 참조)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가장 부각되는 시각과 기관들의 변화하는 예민함은 신자들과 신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법률에서 묘사하고 국회에서 대표자들이 심의한 행동을 기획하는 가톨릭 사회운동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목의 일꾼들과 동행자들은 영성과 사회와 정치에서 일하는 신자들의 성화로 인해 모습이 퇴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회의 ‘새로운’ 복음 선포자가 되기 위해서는: ㉠ 단순한 삶의 부속물로서 자신의 과제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만 신앙과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더 깊은 자기 정체성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복음의 기쁨』 78항 참조). ㉡ 복음화 하는 사명과 자신을 동일하게 보아야 합니다. 열등감에 빠져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확신을 상대화하거나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79항 참조).

³참조. J. M. Bergoglio, 『시민으로서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정의와 연대의 2 천 년대를 향하여. 2010-2016』(Noi come cittadini. Noi come popolo. Verso un bicentenario in giustizia e solidarietà. 2010-2016), Libreria Editrice Vaticana-Jaca Book, Città del Vaticano-Milano 2013, 31-32 쪽.

⁴참조. Z. Bauman, 『공포의 악마』(Il demone della paura), Editori Laterza-Gruppo Editoriale L' Espresso Spa, Roma-Bari-Roma 2014, 48 쪽.

5. 결어

새로운 복음화는 특별히, 새로운 사목 혹은 더 나아가 새로운 교리교육과 새로운 교육방법을 너머 사목적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복음화 사명을 가진 교회 공동체와 사회 간 관계를 다시금 생각한다면, 또 육화되지 않은 영성이나 초월을 망각한 내재철학을 극복한다면, 신자들·사제들·양성자들·사회복음화의 주역들의 새로운 세대들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분야에서 일을 하는 가톨릭 신세대들의 양성은 교회 공동체의 입장에서 양성에 관한 사목적인 재조직을 통해 신앙에 대한 사회적 차원을 진지하게 인식할 때에야 비로소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리오 토소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사무총장